

林 地 的 所 得 圈 化

농림신문社 編輯部 提供

해방직후 어느 國際機構에서 우리나라를 돌아 보고 간 報告書를 통해 『한국의 해방은 전국민에게 入山伐木免許證을 내준 결과를 초래』했다고 혹평한 적이 있었다. 우리는 해방과 六·二五란 混亂期를 두번이나 겪으면서 무질서하게 山林을 파괴만하여 주인없는 共同墓地의 멧 잔등처럼 우리의 江山을 황폐시켰었다. 그러나 그후 정부는 山林復舊의 중요성을 재인식 어려운 나라살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綠化事業을 전개시켜 왔고, 국민들도 산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돼 산을 아끼고 가꿔왔기 때문에 요즘은 산이 물라 보게 좋아진것을 알수있다.

그동안 造林은 우선 황폐한 林地의 土砂 유출을 막기 위한 綠化造林에 집중되어 이제는 林業을 할 수 있는 기반구축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綠化的 意味의 조림은 임업 기반조성을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시되지 않으면 안될 과제였지만 이제는 山이 푸르려졌다는 사실만 가지고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되겠다. 보다 중요한 問題는 무슨 나무를 심어야 全國土의 임지를 1百07萬 山主의 所得圈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냐에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이번 植木日은 해방 후 31번째로 맞는 식목일이다. 이젠 林業도 케도에 올라 綠化的 意味의 조림은 자취를 감추고 山主들이산에서 돈벌이를 하고자하는 조림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林地가 소득권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 6百70萬ha의 林地 가운데 相對的 林地 및 임업경영이 불가능한 除地등으로 40%를

제하고 나머지 60%인 약 4百萬ha의 林地에 ha당 평균 축적을 林業先進國과 같이 1百m³ 정도의 축적으로 조성한다면 그 총량은 무려 4億m³가 된다. 이를 立木價格으로 따져본다면 ha 당 1萬 5千원씩만 해도 6兆원이 될 것이다. 이때 立木의 連年生長率은 4%로 볼 때 연간 林地에서 2千 4億원의 純所得성장을 볼 수 있게 된다. 純所得 성장은 매년 우리나라 原木導入에 소요되는 자금 1千5百億원의 1百60%이며 우리나라 올해 정부 總投融資 예산액 약 2兆5百億원의 12%에 상당하는 큰 재산이다.

이토록 막대한 財貨를 얻을수 있는 潛在生産力을 가진 寶庫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놀라고 있다.

그러나 이 귀중한 산을 우리의 소득권으로 만들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임업상의 문제점들이 많다.

첫째로 林業構造改善이 앞서야한다. 山林所有者 1인당 林業專業經營適正規模가 그나라 사정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1團地 3百ha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평균 2.6ha정도 밖에 안되므로 이같이 영세한 所有규모로는 林業經營이 불가능하므로 所有構造에 變化가 있어야만 한다. 이런 所有構造의 變化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산림의 거래가 활발히 움직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올해부터 山林讓渡所得稅制가 실시되어 거래가 오히려 더욱 위축돼 버린 상태인 것이다. 山林去來의 부진은 그동안 山林去來市場이 없었다는데도 큰 원인이 있었으므로 山林去來所를 설치해서 산림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

때서 山林을 經營하고자하는 사람이 一定規模以上の 山林을 갖도록 各種助長行政을 해야될 줄 안다.

둘째로 林業은 경제적 特質問題가 있는 것이니 만큼 山林부문의 정부投融資비율을 과감하게 높여야 한다. 올해 民有林野에 정부총투용자액은 약 1百億원인바 이는 1百70萬 산주에게 1인당 6千원꼴밖에 안된다. 물론 정부재정이 어렵겠지만 林地의 소득권화를 위해서는 산림부문의 정부투용자가 일찍해서는 안되겠다.

셋째로 技術的인 문제로서 현재 造林樹種이 다양하기는 하나 사실상 이나라 산림의 主人公을 이룰 뛰어난 조림수종이 없다. 材質이 좋고 生長이 빠른 수종이 빨리 육성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林木育種研究所나 林業試驗場이 각종 육종 시험을 통해서 부심하고 있는줄 알지마는 導入, 選拔, 交雜등 광범위한 시험을 해서 기적의 새 造林樹種이 出現되기를 바란다. '뉴질랜드'의 「라디에타」 소나무는 美國이 原產地이지만 鄉土보다도 더 나은 조림성적을 나타내

「뉴질랜드」가 林木輸出國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뛰어난 造林樹種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또하나는 造林技術의 向上問題다. 우리는 해방후 거의 80億그루의 나무를 산에 심었는데 이 조림이 所期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그 주요 원인의 하나가 조림기술의 不在에 있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造林技術이란 하루아침에 터득되는 것이 아니다. 조림기술이 氣象學, 土壤學, 生物學, 土木學, 樹木學등 종합과학의 기초이론을 가진 사람이 경험을 쌓아야하는데, 기존기술자들도 사회적 대우가 나빠서 점차 離職率이 높아가고 있음은 林業발전을 위해 크게 불행한 일이므로 林業내지 造林기술자 확보를 위한 特段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줄 믿는다.

이상과 같은 임업발전의 諸問題點을 하루빨리 補完해서 임지가 소득권으로 발판을 굳히고 그 필연적인 결과로 最大限의 山林間接的效用도 누릴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하겠다.